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돌봄을 실천해요

어르신·가족·요양보호사·종사자가 다 함께
존중과 배려로 어르신을 돌보는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가요.



폭언·모욕

"아줌마! 그것도 못해?"



반말, 욕설, 비하, 모욕 등의
인격을 해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추행

가까이 좀 와봐



불필요한 신체 접촉 및
성적인 농담 등 성희롱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공포심유발

가만 두지 않겠어!



협박, 폭력, 물건을
던지는 등 위험한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야", "아줌마"가 아닌, "요양보호사님", "어르신"이라고 불러주세요.
서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말이 따뜻한 환경을 만듭니다.**



재가복지센터 **봄날**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노후



우리센터는



재가복지센터 봄날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노후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 직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
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해 주세요.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며 존칭을 사용하여
예의를 지켜 주세요.

우리센터 폭언·폭행·성희롱 예방수칙

폭언 예방하기

부드럽고 긍정적인 언어로 대화하며,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폭행 예방하기

폭행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희롱 예방하기

성희롱은 상대방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피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STOP!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인권보호 안내문

재가복지센터봄날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보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정책으로 장기요양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노후를 추구하는 본 센터의 비전과

동시에 요양보호사의 인권 존중을 중요시합니다.

저희 재가복지센터봄날은 상호 존중하는 포스터를 기관에 부착하고

어르신댁에도 전달하면서

어르신과 보호자 그리고 요양보호사에게 상호존중하는 마음으로

품격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로 존중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루고자 합니다.

재가복지센터봄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 받고

<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 내용 >

포스터를 제공 받았기에 이에 동의하고 서명을 합니다.

안내일자: 년 월 일

안내방법 : 대면으로 전달

수급자 :

보호자(관계): ()



재가복지센터 **봄날**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노후